

기획

셀란, 소송 끝 철수 “구성원 요구 반영하는 카페 만들어야”

베이커리 경희부터 매그놀리아 까지

정현진 기자 jhh88@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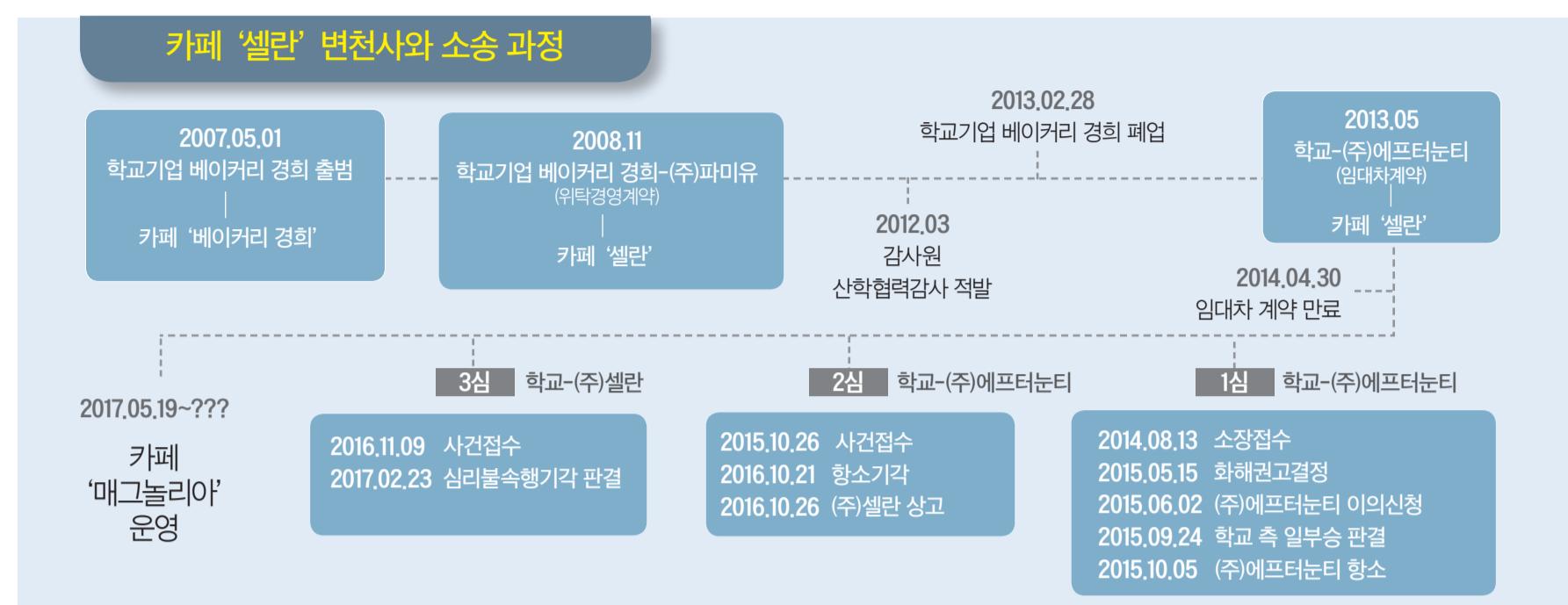
【서울】 호텔관광대학(호관대), 경영대학, 중앙도서관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카페 ‘셀란’이 지난 달 30일 최종 철수했다. 철수한 카페 공간에는 새로운 카페 ‘매그놀리아(magnolia)’가 들어왔으며,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신문은 ‘베이커리 경희’로 시작된 셀란의 변천사와 학교와 벌였던 그간의 소송과정을 짚어보고, 셀란 철수 이후 기존 카페 공간의 활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봤다.

희망에 부푼 출범과 초라한 폐업,
‘베이커리 경희’

2007년 5월 1일, 이전 5년 동안 논의만 되던 학교기업 ‘베이커리 경희’가 출범했다. 이는 당시 큰 수익으로 화제를 모았던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을 잇는 두 번째 학교기업이었다. 구성원들은 베이커리 경희가 학생들에게는 휴식과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또 다른 든든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베이커리 경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5년 안에 매출액 100억 원 달성’과 같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경영난이 곧 이어졌다. 적은 종류의 상품군, 미비한 실습 교육 등 학교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학교가 베이커리 경희의 적자를 교비로 충당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2008년 11월, 학교 측은 베이커리 경희의 지속되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식회사 파미유’에 베이커리 경희 사업장의 위탁경영을 맡기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배’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린 베이커리 경희는 이후 ‘셀란(Cellan)’이라는 낯선 브랜드를 달고 위탁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카페 셀란은 상품 질 개선과 흑자 전환을 이뤄냈지만 학교 측이 더 이상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없는 위탁경영 계약의 특성상 ‘무너난 학교기업’이 됐다. 베이커리 경희 당시 미미하게나마 이뤄지던 실습교육은 위탁경영 전환 이후엔 ‘상품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베이커리 경희(셀란)를 담당하는 대학 내 부서와 담당자



가 자주 바뀌면서,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2010년, 학교 측과 (주)파미유의 위탁경영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2년 3월, 감사원은 산학협력 감사를 통해 학생 실습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적발이 주원인이 돼 베이커리 경희는 2013년 2월 28일, 결국 폐업했다. 출범 초기 포부대로였다면 ‘매출액 100억 달성’을 했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이어진 법정공방, 그리고 셀란 측의 폐소

위탁경영의 대상이 폐업했으나 자연히 (주)파미유와의 위탁경영 계약도 종료됐다. 학교 측은 카페 셀란을 대학이 직영하는 대신 (주)파미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에프터눈티’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을 택했다. 같은 간판 같은 모습의 셀란이 었지만 더 이상 학교기업에 속하지 않기에 실상은 다른 셀란이 된 셈이었다.

2014년 4월 30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셀란과 학교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퇴거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주)에프터눈티가 거부하고 나섰다. (주)에프터눈티는 ‘임대차계약보호법’을 들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임차인인 셀란이 임대인인 학교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학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학교 측은 계약 해지를 위해 ▲학교와의 합의 없는 식품 가격 인상 ▲오비스흘과 중앙도서관 매장의 영업신고증 부재 ▲셀란의 호관대 내 제과제빵 실습실 무단사용 ▲임대차계약종료 후 상가무단점유 등 4가지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에프터눈티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음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음료 용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영업신고증 없이 운영됐던 중앙도서관과 오비스흘 매장에 대해서도 “영업신고증은 학교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으며 호관대 지하 1층의 제과제빵 실습실을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위탁경영 때부터 이용한 공간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13일, 학교 측은 (주)에프터눈티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2015년 5월,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부가 분쟁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피고 (주)에프터눈티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5년 9월, 원고인 학교 측 일부승으로 1심이 마무리됐다. 일부승은 재판부가 소장 내용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이다.

곧 피고 (주)에프터눈티는 항소했다. 2016년 10월의 2심 결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에프터눈티는 (주)셀란으로 상호를 바꿔 다시 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심리불속행기각이라 한다. 결국 3년에 걸친 법적공방은 지난 2월 23일 셀란의 폐소로 막을 내렸다. 호관대와 중앙도서관의 셀란 매장은 4월 28일, 오비스흘 매장은 4월 29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4월 30일에 카페 공간을 모두 철수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던 셀란은 사라졌다.

카페 ‘매그놀리아’ 임시 운영

셀란이 위치했던 호관대 외부의 카페 공간과 오비스흘 매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중앙도서관 매장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매그놀리아(magnolia)’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매그놀리아는 외부 업체가 아닌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8월 말까지 임시로 운영될 계획이다. 생협 김민하 팀장은 “카페 셀란이 이용자가 꾸준히 있는 학기 중에 철수한 상황을 고려해 생협에서 임시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매그놀리아 카페의 매장과 음료 가격은 셀란과 동일하지만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의 종류나 식품 종류 등에서 세부적인 변동이 생겼다.

재정예산처 왕호용 계장은 “셀란 철수 후 공간이 비어있던 10여 일 동안 비슷한 기능을 원한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었

다”며 “최소 8월 말까지는 생협이 임시로 카페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기능의 시설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예산처 서병식 과장은 셀란 철수 직후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카페 공간이 학생들에게 갖던 순기능, 즉 실습과 휴식·공부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새롭게 조성될 공간에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왕 계장 역시 이후 조성될 공간에 대해 “학생 실습이나 인턴 채용 등의 기능을 제공해달라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해당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외부업체를 선정할지 생협이 해당 기능을 갖춰 방학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편의시설을 통해 학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기호웅 기자)

제19회『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공모

중앙도서관 연중기획『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9회『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공모

중央도서관에서는 경희 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퍸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월) ~ 11. 5.(일)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홈페이지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발표

- 수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시상

- 최우수상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12명(상품권 5만원)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놓을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T. 031-201-3213)

국제캠퍸스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첨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석사학위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아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원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수시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n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